



하상주보

2019년 11월 17일 (다해)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1772호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시편 9,19).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문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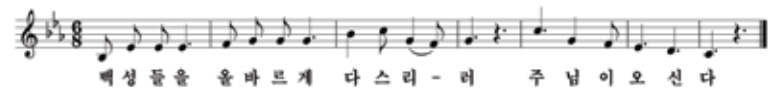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2019

[제1독서] 말라 3,19-20

[화답송] 시편 98(97),5-6,7-8,9
(◎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2테살 3,7-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음] 루카 21,5-19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499] 만찬의 신비
- 파견성가: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때에 ⁵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⁶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⁷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⁸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⁹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¹⁰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¹¹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¹²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¹³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¹⁴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¹⁵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¹⁶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¹⁷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¹⁸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¹⁹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묵상

이두매아 출신으로 유다의 임금이 되었던 헤로데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기원전 20년경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을 능가할 계획으로 성전이 산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성전 지대를 건설하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 지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로데가 죽은 뒤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예수님 시대를 지나 기원후 64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성전도 여전히 증축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원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티토가 이끄는 로마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는 제1독서 말라키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전후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도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복음서 마지막에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하고 권고하셨습니다.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시련이니,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늘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에 언제나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씩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말을 잘못 이해하여 불안에 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호도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교리가 넘쳐 나는 오늘, 독서와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우리에게 파멸이 아닌, 구원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시편 9,19). 이 시편 말씀은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시의적절합니다. 신앙이 특히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불의와 고통과 불안한 삶 앞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입니다(시편 9,11 참조). 가난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은 신뢰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신뢰의 이유도 제시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시편 9,11 참조). 성경에서 이러한 ‘알’ 은 애정과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결코 그들의 간구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정의를 베푸시며 아니 잊으시는 분입니다(시편 40[39],18:70[69],6 참조).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여 외치는 성경의 절박한 호소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느님 말씀은 가난한 이들, 타인에게 종속되어 생활필수품조차 부족한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이들, 비천한 이들, 땅에 쓰러져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무수히 많은 가난한 이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동일시를 부정한다면 복음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시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마르지 않는
선과 은총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실의에 빠져
미래의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 사랑은 “옆집의 성인들” 을 통하여, 곧 자신의 소박한 삶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힘을 명확히 보여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방식과 수많은 수단을 활용하시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다. 분명 가난한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나 빵 한 쪽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금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찾고 당신께 간구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아니 잊으십니다” (시편 9,12).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희망은 참혹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어떠한 고통이나 배척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들의 존엄을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힘없는 당신 자녀들의 처지에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처리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시편 10,14[9,35] 참조). 가난한 이들의 희망은, 주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정의를 찾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어 그들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굳건해집니다(시편 10,17[9,38] 참조).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어느 누구도 친교와 연대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다음 말씀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말라 3,20).

위령성월의 <죽음 준비 교육>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성요셉 아버지학교(지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에서는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제1회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일과 10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47세부터 86세까지 45명의 수강자가 참석했다. 처음으로 개강하는 죽음 준비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신자도 있었지만, 봉사자를 포함한 63명이 참석한 강의실은 자유로운 그룹나누기와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였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마당'을 주제로 시작한 죽음준비 교육은

- ①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그리는 '인생그래프를 통한 자기성찰'
- ② 어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살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액티브시니어로 살아가기'
- ③ 가톨릭 신앙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
- ④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당부와 바람을 써보는 '유언장 쓰기'
- ⑤ 죽어 헤어져도 잊지 못할 사람과 만나는 '꼭 한 번 만나 보고 싶은 사람'
- ⑥ 버려야 할 것과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버킷리스트 작성'으로 총 6개의 강의로 이어졌다.

'자기성찰' 시간에는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와 가치·비전을 찾는 각자의 인생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 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자매님, 지그시 눈을 감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 형제님, 그리고 입가에 밝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자매님... 그들의 표정에서 지나온 삶을 읽을 수 있었다.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시간에는 삶을 살답게 살도록 교육하는

하루 하루를 진지하고 충실히 살아야 한다"며 "잘 죽는 것(Well Dying)은 고통없이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를 부활의 희망 속에서 부르심 받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히 사는 것, 즉 선종"임을 강조하였다.

가족에게 남기는 유연장인 '마지막 바람과 당부' 시간에는 각자 작성해 온 유연장을 읽으며 전체 나누기를 하였다. 일주일간 유연장을 쓰면서 "막상 유연장을 평생 처음 써 보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 지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자매님, "50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에게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오!"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바라는 형제님 등 수강생들은 저마다 과거를 되돌아 보며, 용서와 화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상 임종의 시간에는 먼저 떠난 분을 자신의 촛불에 초대하여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진심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이젠 더이상 울지 않겠다고, 슬퍼하며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 사람을 떠나 보냈다.

마지막 제6교시의 '버려야 할 것과 꼭 하고 싶은 일'에 관한 강의에서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짓누르던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잊고 싶은 일,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하여 희망과 기쁨과 설렘의 분위기로 충만한 가톨릭의 종말론과 함께 기다리며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살기로 마음을 다져보았다.

백인현 주임신부님은 강의에서 "삶과 죽음은 뿔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묵상하면서

가졌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적어가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새로이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인생 2막의 꿈과 소망을 다짐하는 수강자들의 얼굴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모든 강의가 끝나고 수강자 소감 발표에서 강세원(바오로) 형제는 "죽음 준비 교육은 어떻게 잘 죽는지를 알려주는 강의로 알았는데, 강의를 통해 잘 죽기 위하여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최환용(바오로) 형제는 "80세의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마음이었다. 그러나 남은 인생여정에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재필(제프리) 형제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 다닌다'라는 강의 내용이 머리속 깊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은 "죽음 준비 교육에 소중한 시간을 봉헌하신 수강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 품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 삶을 끝내고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때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고 강복해 주었다.

죽음 준비 교육 강사 박성태 형제는 "우리 세대는 아직도 죽음을 멀리 하고 싶어하고 자신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우리 삶의 동반자이므로 하루 하루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죽음 준비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을 강조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순종하며 순서없이 가야하는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죽음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그만큼 더 빨리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 하루 하루의 삶을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며 40-50대 젊은 층 수강자들이 적은 것을 아쉬워했다.

(성 요셉 아버지학교)

▽그룹 나누기



▲버리고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수강자들

당신을 생각하며

-죽음 준비 교육에 부쳐-

유혜란 피아나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던
당신의 말을 들으며
짙어 온 나날들

이제 육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떠난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말

인성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
모든 것 다 보여주신

그 분을 만나 보았느냐고

공포와 번민과
수난과 치욕이 극에 다달아
피땀을 다 쏟으시고
목마르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떠나온

예수님 그 분을

알고 떠났느냐고

내 육신이 어디에 묻힐까

내 영혼이 무엇을 통회해야 할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미처

준비도 못하고 떠난

당신을 생각할 때에

현세에서
현재의 삶에서
일찌감치
하느님을 만나야 했는데

죽고나서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살아야 했는데

모든 것 사라진듯

오열하며 떠나보낸

당신을 생각하며

다시 만남의 희망을 안고

사랑과 기쁨

찬미와 영광의 여정을

곳곳이 걸어가야하리

당신의 기운이 내 안에 서려있어

떠남이 떠남이 아니라

그 분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

영원히 함께 함을 알기에

매순간 성체로서 만나온

그 분의 말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알기에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요

죽음이 있어 더욱

삶이 찬란해짐을 알기에.

(바오로딸 콘텐츠)

○ 2019년 성소주간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 신학생 다니엘 라이스 방문, 성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가져



성소주간(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11월 3일-9일)을 맞아 주일학교에서는 성소(사제·수도자·결혼·독신)에 대한 수업과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성소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교구 신학생인 다니엘 라이스(Daniel Rice)가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 중에 본인의 성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 바르톨로메오 신학교 6년차인 다니엘은 첸트리 토박이로 고등학교 11학년 WorkCamp 봉사활동 중 아침 성시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면서 그동안의 혼돈과 두려움을 정리하고 사제성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 후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속에 신학생이 되어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처음 결심 때보다 더욱 더 사제가 되겠다는 열망이 커져가고 있다며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채 말하였다.

또한 CYO 학생들과의 수업 시간에는 “하느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성소(사제·수도자·결혼·독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대화 즉,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본인은 어릴 때 형제들과 함께 했던 부모님과의 성경 읽기, 기도, 묵주 기도, 그리고 성가 부르기 등이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지금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고백했다.

위령 성월에 부치는 사모곡

최선향 크리스티나

엄마 이젠 그곳에서
마음껏 훨훨 날아 다니시나요
보고 싶던 이들과 얘기도 신명나게 하시고요

칠순이 되어 형제와 친지들 남기고
이민생활 고되다는 딸을 위해
떠나온 조국

엄마는 이곳이 감옥 같다고 하셨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고독한 세상

손주들이 돌아오는 오후 세시를 기다리며
홀로 보내던 그 긴 낮이 적적해서
엄마의 얼굴은 표정을 잃어 갔었지요

훨씬 나중에
미니밴 타고 복지회 노인정에 다니시며
유치원생처럼 즐거워 하셨어요
다닐 곳이 있어서 살 맛 나신다고

지금 엄마 계신 곳은
더 즐겁고 평화로운 곳이겠지요
바람 스산한 가을날
아득한 하늘을 향해 불러봅니다
그리운 나의 어머니

○ 추계 대청소

2019년도 본당 추계 대청소가 구역부 주관으로 지난 10일(일) 10시 미사 후 진행되었다. 본당 14개 구역부원들은 구역별로 맡은 장소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했다.



대림특강 1

- 일시: 12월 1일(일) 오후 1시 - 3:30
- 강사: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터 한인성당 주임신부)
- 제목: "로고스와 스토리를 통한 그리스도와 대림의 이해"

대림특강 2

- 일시: 12월 8일(일) 오후 1시 - 3시
- 강사: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 (조지 워싱턴대 박사과정)
- 제목: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

10 복사단 모임

- 일시: 11월 24일(일) 오후 1시 (B-1,2)

11 2019 - 2020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및 신청: 3학년 이상 학생들, 11월 24일까지 매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하상관 로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2 청년들을 위한 한글학교 개강

- 일시: 매 주일 오전 11:40 미사 후 (하상관 #107)
- 담당 교사: 송정아 마리아 (703)505-6974

13 청년 성서모임 15주년 기념 감사의 날

- 일시: 11월 24일(일) 오후 1시 (A-1,2,3)
- 대상: 20-30대 청년(로고스, 라파엘, 바오로)
- 청년 성서모임 15주년 기념으로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조다운 아네스 (703)965-2988

14 ME 주최 2019년 성탄 파티

- 일시: 12월 8일(일) 오후 12시 - 5시
- 참가비: 1인 \$55(Steak/Fish 선택, 와인 포함)
- 등록: 11월 24일(일), 12월 1일(일) 미사 후 친교실
- 분당 교우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 문의: 김창호 요안 비안네 (703)830-5373

15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6 알링턴 교구 St. Lucy 프로젝트 푸드 드라이브

- 기간: 11월 23일(토) 까지
- 도네이션 장소: 하상관 로비 및 친교실
- 도네이션 품목: 드라이 푸드(파스타, 스테핑 믹스, 콘브레드 믹스 등), 통조림(야채, 터키 그레이비 등)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7 바쁘리치안회 11월 모임

- 일시: 11월 24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 주제: 비신자에게 성모님을 어떻게 알리나
- 대상: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 하상회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30 (B-3,4)

2 안나회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30 (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4 중등부·고등부 Thanksgiving Potluck Dinner

-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6시 (친교실)

5 시청각 통신 성경공부 안내 세미나(교육부)

- 일시: 11월 24일(일) 오전 11:30 (A-1,2)
- 내용: 바오로딸 시청각 통신 성서교육 과정 안내(6년 과정)
- 강사: 홍재마 수녀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6 성서주일 바오로딸 수녀회 도서선교

- 일시: 11월 23일(토) - 11월 24일(일), 미사 후, 성당 로비
- 성경 사전, 성경 묵상집, 성경공부 교재, CD 판매

7 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

- 일시: 11월 24일(일) 오전 11:30 (B-2)

8 요한회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50대 교우)

- 일시: 11월 24일(일) 오전 11:30 (B-3)

9 K of C 월례회의

- 일시: 11월 24일(일) 오전 11:30 (B-4)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33주간: 지혜 10-14, 필리 3

KACM TV 하이라이트

- 11월 21일(목) 오후 5:00-6:00
- 11월 22일(금) 저녁 8:00-9:00
- 11월 24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 암브로시오와 모니카: 윤원진 비안네 신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1월 10일(연중 제32주일)

주일헌금	\$7,650.00
교무금	\$13,4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8,840.00
특별헌금	\$440.00
2차헌금	\$2,497.00
합계	\$32,87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안네,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재(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보(야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희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거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이영민(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요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1월 17일(일)	연중 제33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스프링필드 구역모임(오전 11:30, B-1,2), 성 요셉 아버지 학교 교육(오후 1시, A-1,2)
18일(월)	연중 제3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사무실 휴무(Veterans day)
19일(화)	연중 제33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하상관)
20일(수)	연중 제3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21일(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22일(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울뜨레아
23일(토)	연중 제33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중등부/고등부 Thanksgiving Potluck(오후 6시, 친교실)
11월 24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요한회 총회(오전 11:30, B-3), 루카회(오전 11:30, B-2), KofC 모임(오전 11:30, B-4),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딸 도서선교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얼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마카엘라) 571-263-103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저녁 6시까지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